

원주국토청 도로건설사 간담회

도내 국도건설 13개 현장이 안전 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박승기)은 25일 발주청 및 시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들이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국도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주청이 시행중인 도로건설 13개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재정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토록 독려한다.

원주=유학렬기자 hyyoo@